재인격화

# 노인간호의 실제방향

Susan M. Sink

<연세의대간호학과> 명 규 임 역

이것은 Nursing Home(노인 만성병 환자를 입원시키는 병원)에 수용된 노인 정신병환자들의 요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지를 알아보려고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연구한 내 경험의 내용이다.

「센트 루—크」 병원은 「와싱튼 센트라리아」에 있다. 본래 시영병원이었던 이 병원에는 60에서 65세까지의 여러 층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었다. 환자들은 대부분 독방을 쓰고 있었고 3층에는 두사람이 같이 쓰고 있는 방도 있었다. 그들중 90%가 국가보조를 받고 있었고 거의 반수 이상이 보행이 가능했으며 이런 병원에서 의례 그렇듯이 그들 대부분이 진정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병원은 수녀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고 그들 중에 3명이 자격간호원이었다. 나머지 직원인 간호보조원들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가정경제 때문에 일하는 중년부인들이었다. 이들은 자주 직업을 바꾸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내가 이 병원에 처음 갔을때 나의 직책에 대한 설명은 애초에 없었고 그저 「멜리쓰」 수녀님을 도움도록만 지시를 받았는데 일층에서는 한명의 자격간호원이 30명의 부인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나는 내가 맡은 환자들의 여가 시간을 이용한 여흥과 직업적 치료 활동의 계획을 세우도록 책임을 맡았다.

환자들의 직업의 복잡성과 서로 맞지 않는 여러 층의 사회적 배경, 또 거의 모든 환자들의 정신적인 욕구 등을 내가 알기 시작하자 부족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시아틀」 간호대학으로 부터 갖 온 나로서 "개별적인 간호" (personalized patient care)라는 고상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노인환자, 더우기 정신병환자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지 못한 나는 무

엇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 할 수 있겠는가?하는 감정에 압도되어 있었다.

문제점들 중의 하나는 그들은 보통 환자들과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개방된 사회에 나아가 살 능력이 없어서 병원과 같은 기관의 안정성과 보호성을 원하기 때문에 희망이 머던 환자가 무척 많은 것이다. 환자들의 집에서 환자를 위해 보내오는 적은 용돈은 그의 가족이 본업 외에 남은 시간을 이용해 일한 댓가로 얻은 돈인 것이다. 그들의 가정에도 이 환자와 관련성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들면 Multiple sclerosis, Parkinson's disease 나 Stroke와 같은 질환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돌아갈 집이 없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독립해 살 수 없는 그런 늙으막의 환자들이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도 계속 간호하는데 문제되는 점을 이해하고 발견하려고 항상 노력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한 여러 과목의 교과서와 노트를 읽고 공부하면서 "오래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 책들을 읽고 비교해 가면서 연구해 나감에 따라 내가 봉착한 난점의 list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1.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모양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어떻게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2. 치료를 받는 환자나 치료와 간호를 해주는 직원들까지도 필요한 치료를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3. 환자들 상호간이나 환자와 병원직원들 간에 진실된 의사소통이 없었다.
4. 많은 환자들이 낭담했다. 의자에 앉아서 하루 종일 동안 멍하니 창밖을 내다 보고 있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
5. 병원 직원들은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있었다. 가끔 그들은 환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했으며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이름을 부르거나 그들을 격려했다.

간단히 말해서 이 Nursing Home은 노쇠해가는 비인격적인 시설로 쇠퇴해가고 있었다. **비인격화**라고 하는 것이 의학이나 간호학에서 하나의 완전한 과제로 문제시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그것은 일종의 질환이다.

피동적인 행동이나 타인에게의 지나친 의지 또는 사회적인 격리 현상, 요양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려는 현상보다 어떻게 더 퇴보할 수 있겠는가? 노인들중에 대단히 많은 수의 시민이 이런 현상 중에 한두가지 문제 때문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그

들이 정신병 요양원에서 여러 해를 지났을 때 특별히 더 한 것이다. 흔히 국영 정신병원에서는 노인환자들을 Nursing Home에 방치해 둔다.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이 노인환자들에 더이상 철저한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보조가 너무 싸기 때문이다.

그문제의 확실한 해결점은 환자를 재인격화시키는 것이라고 나에게 확신되었지만 현실로 돌아가 재인격화의 푸로그램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그렇게 자신이 없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다니던 학교의 두 저명한 교수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제언을 해주고 몇가지의 참고서적을 보내주었다. 그책들은 **Remotivation Technique,**과 **A Manual for Use in Nursing Homes**였다.

나는 가장 적절한 방법에는 5단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1)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2) 인격적인 관계

(3) 사회생활에의 참여

(4)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과 평가.

(5) 존중과 감사의 분위기 조성들이었다.

그 책들의 이상과 원칙 또 그 program의 진행등을 공부하고 나서 나는 환자들의 그룹을 나눠 조직하기 시작했다. 내가 잘 모르는 환자들도 개인적으로 방문하고 또 한편 의학적 사회적 정신적인 환자의 기록을 검토해서 가능한한 모든 재료를 수집했다. 또 기회가 닿는대로 환자 가족과도 면담했다. 내가 조사한 것 중에는 어떤 환자의 전직,취미,기호 또는 살던 주소가 포함되어 있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환자를 하나의 인격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는 적은 단서를 잡은 것이다.

나는 환자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환자가 우리 병원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하기 좋아할런지에 관해서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대답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많은 참고를 주는 것들이었다. 그들은 거의 다 그들의 환자가 좀더 나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만 있지 말고 다른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간호원의 도움을 얻어서 나는 열사람의 부인 환자를 선택했다. 그리고는 그 열사람을 찾아가서 그날 오후 "social hour"(사교시간)에 아래층 오락실로 오도록 초청했다. 그 첫번 초청에 다섯사람이 "거긴 한번도 가본 일이 없는데요."라든가 "왈든 부인이 온다면 난 안가요."하는 식으로 거절하거나 피했다.

나는 강요하기는 싫었으나 이런 거절이 단순히 "무관심해서" 또는 자

리를 뜨기 싫은 감정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공포심에 기인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는 농담도 하며 또 다른 사람은 격려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응하도록 상냥한 表情으로 졸랐다. 이번 집회는 감사절 주간에 이루어졌다. 첫단계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도됐다. "아름답게 물든 가을 날이죠?" 라든가 "머리를 참 우아하게 빗으셨군요 조세핀씨 언제부터 그렇게 머리를 손질 하시게 됐어요?" "당신 손자는 잘 있읍니까?" 등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주의를 집중시켜 모두를 약간 우쭐해 하도록 태도를 취했다. 다음은 나머지의 네단계가 차례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경청했고 또 반응을 보였는데 특별히 그들이 과거에 감사절을 지낸 활동에 화제가 이르자 더욱 활발해졌다. 아주 우연히 그룹중의 두 사람이 「미네소타」의 같은 마을에서 오게 된 것을 알게 됐다. 그 후로 그 두 부인들은 두고 온 집에 대한 추억을 서로 이야기하며 서로의 방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다.

약 한주일 후에 나는 그들에게 다시 모이겠는가고 물었다. "오게 되면 오지요."하는 식의 무관심한 대답이 아니라 전연 다른 "아! 오구말구요. 내 방을 나와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참 좋군요."하는 활발한 대답들이 나왔다. 나는 이 모임의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이 모임을 위해 어떤 제안을 해 준다면 반갑게 받아들일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는 이 모임의 명칭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와 얼마나 자주 모였으면 좋겠는가도 물어보았다. 이 조사에 관한 답들이 여러가지로 나왔다. Multiple sclerosis(다발성 결화증) 환자인「샌더」부인은 이렇게 제의했다. "우리 구룹의 이름을 샘풀 미팅(sample meeting)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난 우리교회 구룹에 속해 있었는데요 우리는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일거리를 갖고 모여서 교회를 위해 일을하곤 했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니까 같이 도와가며 일 할 수 있었구 남을 도울 수도 있었답니다."그러자 미스「배킬」이라는 노처녀가 "그럼 우리 구룹을 샘풀 미팅(sample meeting)이라고 부릅시다"하고 감동되어서 제의를 했다. 그래서 모두의 찬성으로 우리는「샘풀 클럽」의 회원에 되었다. 이 명칭은 내가 생각하고 목적했던 것 보다는 그들에게 다른 의미에서 뜻있는 무엇이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번씩 오후에 모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들에게 3층에 새로 마련된 칠판에 정확한 날자와 시간을 계시하겠다고 발했다. 계속해서 가졌던 우리 모임의 제목들은 **크리스마스 캐롤, 부인의 유행, 꽃의 아름다움, 채소와 과일저장, 죽음** 같은 것들이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이런 구룹에서 죽음에 대해서 토의한다고 하는 것이 분별없는 짓이 아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지도 모른다. 나도 역시 이런 논제를 이야기하기가 매우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얼른 죽고 싶어하는 갈정을 암암리에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문제에 대한 내적인 절박감을 느꼈었다. 어떤때 그들은 아주 직접적으로 "난 여기 죽으로 왔는걸 뭐!"하는 식의 표현을 하곤 했었다. 이러한 논제를 제공한 또 하나의 다른 이유는 이 병원의 가장 주된 임무 중의 하나가 각자가 스스로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을 돕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 주기 위해서였다.

그 모임은 죽음에 관한 시편 129장 22편을 읽음으로 시작했다. 내가 성경을 닮았을때 반응이 별로 없었다. 모임 전체가 진흙곡을 부르고 있는것 같이 느꼈다. 모두들 태도가 갑자기 변해서 눈을 내리 깔고 있었고 입을 한일자로 꾹 다물고들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우수에 꽉 찬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제 4단계인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옳은 인식과 평가"로 진행시켰다.

주저하고 망서리다가 그부인들은 사망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죽는다고 하는건 모든 사람이 한번씩 당하는게 아니겠어요." "내 생이 행복한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죽는다는 걸 난 생각하기 싫어요 허지만 가끔 생각하게 되는군요. 그건 참 알 수 없는 일인것 같아요."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참 좋아 않는 것이라고 가끔 느끼죠. 허지만 더 살 필요두 없는것 같아요." "만일 죽는 것이 그렇게 나쁜게 아니라면 난 지금 자살해 버리겠어요. 허지만 하나님이 데려 가실 때까지 참겠어요." 이런 모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부인들은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죽음 뒤의 생활이 어떤 것일까? 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그들의 남편들과 다시 만나게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 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기를 원하는가? 등을 얘기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회화가 약간 지연됐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당신들은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며 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고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질문이 너무 개인적인 것이 아닌가 의아해 했다. 그런데 「죠세핀」부인(자주 간질병 발작을 하는 환자)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저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결점을 너그럽게 보고 그사람에게 친절히 해 주는길 밖에 없는것 같아요" 하는 것이었다. (죠세핀 부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었을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동의해서 죽을 때 많이 후회하지 않고 편안히 죽으려면 다른 사람에게 좋게 대하여야 겠다고들 했다. 그들이 죽음을 삶의 한 부분에 귀착시키는 것은 나에게도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나는 구조된 것 같은 평안함을 느꼈고 그 결정에 매우 기뻤다. 환자들은 서로들 어떻게 더 잘 대우하고 지낼 수 있을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는 그 모임은 끝났다——성공이었다.

병원에서 일해본 사람은 누구나 다 환자들간의 계속적인 언쟁이나 인색한 감정은 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토의를 가졌던 집회 이후에 직원들은 환자들간에 전에 없던 서로 서로의 마음씨 쓰는 것, 즉 "잠간 「아담스」부인을 기다려 같이 갑시다. 그여자는 혼자 승강기 타기를 무서워 한답니다." 같은 말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었다.

"아무리 튼튼한 기둥도 혼자서 집을 받치고 있을 순 없다"라는 중국의 격언이 있다. 나도 역시 많은 후원을 바라고 있는 아이 다섯을 부양하고 있는 50세 가량된 부인의 동조자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 여자는 성격이 온화하여 노인이나 약한자들에게 매우 친절했고 주의스러웠다. 나는 그 여자에게 설명해 주고 도와 주지 않겠느냐고 요구했다(물론 나는 수간호원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그런데 그는 벌써 이것에 대한 재료 수집을 해 놓고 있었다). 그 여자는 그후 「쎌풀 클럽」에 참가해서 우리들의 목적하는 바 재인격화의 기술을 공부하고 익힌 후에 남자와 여자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구룹을 따로 하나 만들었다. 둘째번째 도움의 군원은 이웃에 사는 열명의 소녀들의 구룹이었다. 그 중학교년급의 소녀들은 봉사대를 조직하고 투표를 해서 "명랑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의 명칭을 부쳤다. 왜냐 하면 그들이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보고 그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나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랑하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런 적극적이고 간단한 철학은 비인격화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의 해결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가져왔다. 얼마 후에 "명랑한 사람"들은 재인격화 「푸로그램」에 지도자료로 적격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그들은 대부분이 「캠프파이어」(camp fire)나 소녀단에 속해 있어서 구룹활동에 대한 다양한 소재와 방법들과 이상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단체에서 함양된 "명랑한 사람"들은 형제애의 태도와 활동으로 환자들을 성공적으로 즐겁게 해줄 수 있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오전에

환자들과의 모임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의 구룹활동 중의 하나가 비참히도 참패를 한 적이 있다. 내용은 "dancing"(춤) 이었다. 젊은이들은 "Watusi"라는 노인들이 모르는 춤을 추었다. 그러나 「갱그티」부인이 "Cindy Hop"나 "Cake Walk"와 같은 다른 춤을 추어 보라고 제의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젊은 친구들이 어리둥절해 버리고 말았다. 이래서 이 두 세대에 다리 능을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해졌다.「스미트」부인이 "그런 춤은 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하고 그의wheel chair(구루마 의자)에 앉아 떠나 버리자 집회는 그만 무뚝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들은 큰 교훈을 얻었다. 그 후로는 모든 내용은 환자들에게 의미있는 것이 되기 위해 조심성 있고 면밀 주도하게 검토되었다. 그 "명랑한 사람"들이 기여한 적극적인 사실은 그들의 "찬저히 할 줄 아는 능력"이었다. 예를 든다면 한 환자가 과거에 뜨게질 하는 것을 좋와 했다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한 명랑소녀가 털실과 뜨게질 바늘을 선물한 것이었다. 또한번은 시력을 거의 잃어버린 「카쓰」부인이 옛날에는 숲속을 거닐기를 얼마나 좋와 했는지 모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후로는 명랑소녀들은 규칙적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나 이웃을 거닐기 시작했다. 「카쓰」부인은 가끔 풀잎들이나 꽃들을 채집해 들고 들어오군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여자가 만져보고 냄새 맡고 할 수 있도록 모아준 것이었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 병원에서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욱 밝아지리라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지금 바누질 클럽, 빙고 파—티, 생일 축하 및 푼비 클럽 또는 오락실이나 예배당에서 모이는 노래부르기 클럽이 있고 또 새로운 구룹들이 조직중에 있고 한편 기왕 있던 구룹에는 변화가 있게 새로 조직해보는 계획들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구룹활동의 변화는 그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그 위에 간호하는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각 구룹활동에 참석하는 어떤 간호보조원들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한편 간단한 재인격화의 기술을 발휘해서 모임을 자극시키곤 했는데 그러므로써 보조하는 역할에 더욱 이득을 가져오기도 했다. 예를 든다면 방을 들어가면서 환자들에게 그의 직책명(구룹활동의)과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함으로써 화제를 발견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재인격화 운동이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비인격적인 대우 문제는 현저하게 경감되었다.

〈Nursing Outlook Aug. 1966에서〉